

제 1 장 (KJ 흠정역)사도행전 Tape #8090

성경책 중에 사도행전 1 장으로 가볼까요. 1 절을 읽으면, “오 테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인데, ‘내가’는 세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는 것이 항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전 보고서 혹은 논고는 누가에 의해 전해진 그 복음을 참작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의사였는데, 아는 대로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기간 동안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될 때도 거기에 같이 있었으며, 그는 주의 깊은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이방인이었기에, 신약성경을 쓴 유일한 이방인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는 두 개의 책을 쓴 거지요, 사도들의 행전과 그리고, 당연히 누가의 복음서가 그것들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의한 복음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제출된 전형적인 보고서와 그 증거들을 질문하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방문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마리아와 면담했을 것이라는 지시의 흥미로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들을 매우 주의 깊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흥미롭게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누가는 이것을 테오빌로에게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초기 전통에 따르면, 매우 부유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로마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돌아와, 그의 회당을 교회가 사용하도록 바꾸어 주었으며, 추측이긴 하지만, 테오빌로가 누가를 자유롭게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 당시 누가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여러 신체적 허약에도 불구하고 전도여행을 강행하므로, 누가로 하여금 바울을 수행하여,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는 물론 그리스에서 로마에 이르는 넓고 혹독한 여행을 할 때, 바울의 의료적 필요를 돌보아 주도록 테오빌로가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말이 있기도 합니다. 테오빌로는 전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름도 실명이 아니라 누가가 아호를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테오스 필레오(Theos Phileo)’라는 말로서,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를 단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이것이 말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당신의 유익과 지식을 위하여 당신은 아주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2 절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시고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 3 절 “**그 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이전 보고서, 즉 누가의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그분의 삶과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승천하신 곳인 감람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10 절에서 승천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처음 몇 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몇 절과 동일합니다. 그는 다소 누가복음의 마지막 몇 절과 사도행전의 맨 처음 몇 절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라”(눅 24:49)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되,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행 1:5). 그 뒤 승천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은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 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 테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입니다. 누가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사도들의 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2 절의 지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분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즉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자 설명, 한글 개역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영어에서는 ‘after that’가 있음. 병행되게 맞추어 보면, 2 절에서 “명령들을 주시고”라는 부분에 이 영어의 표현이 따라 옴. 그러니까 “명령들을 주시고, 그런 후”라는 말이 됨]. ‘그런 후,’ 그것은 무슨 ‘후’ 라는 말입니까? ‘승천 후’를 말합니다. 그 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셨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 치료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그 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단지 지금은 그 분이 선택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입니다. 이런 감각에서 사도행전은 현재까지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열려 있는,

끝이 없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그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것과 마지막 장은 아직까지 이 사도행전이 다 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기를, 3 절 **“그 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약 우리가 증거나 눈으로 본 증인의 진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실들의 법률학의 시스템에 어떤 인정을 주어야 한다면, 두, 세 사람이 어떤 날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놓았다면, 그들이 위증할 것을 우려하여 맹세하게 하고 진술했다면, 확고하게 형량을 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로서 법원에 의해 채택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정의의 시스템 안에서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 (whole) 법률학 시스템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본 자들의 증거와 위증의 형벌아래 증거의 진실을 선언함에 의한 사실들의 확인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다른 두 제자들에게, 다음에 첫 주일날 밤에 도마가 빠진 열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 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갈릴리에 있는 7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전 15 장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다른 시간에 나타나셨고, 한번에 5 백 명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분은, 나는 살아있고, 단지 환영이나 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먹을 것을 주시며 말씀하셨고, 자신이 유령이나 영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들과 함께 생선도 먹고, 꿀도 잡수셨습니다. 영은 살과 몸이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며, 만져 보라! 느껴 보라! 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댔고, 그 분이 환영이 아니고, 영도 아닌 것을

인식하려고 그들은 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은 죽음에서 신체적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분은 절대 틀림없는 많은 증명에 의해, 사망에서 그 자신이 살아 나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분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되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들의 증거 때문에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이 사망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분명히 그들이 바로 그 삶에 놓였을 때, 그들은 자기의 육체를 구하려고 속임수를 써 자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죽임이라는 형벌로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행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진실하다는 것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절대 틀림없는 증명에 의해 고난을 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뒤, 오순절의 칠일 동안의 절기 안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교병의 잔치가 시작된 후 50일째 되는 때에 발생합니다. 유월절 후에 발생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낮과 3일 밤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셔서, 40 일이라는 기간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불과 일 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 지금 내가 미리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그 분의 사역을 통해 보면, 그 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왕국 아래 있고, 어두움이 사람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고, 그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높은 산위로 데리고 가서, 만약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수완에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 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엡 2:2 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옛 생활에 대해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은 세상의 조직은 사탄에 의해 통치되고, 지시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실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념, 생각, 가치체계는 사탄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런 경우에 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도덕체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전혀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이 염려되리만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 천하고 낮은 도덕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의가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사랑 안에서 화평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사 2:4 은, “그 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는 말하기를, 그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하였고, 더 이상 전쟁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곧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약속은 율 2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 대언자는 마지막 날에 대해 선포하기를(율 2:28-32),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인도할 수용력을 주기 위해 부어 주셨습니다. 출 18:13-27 을 봅시다. 짐이 너무 무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불평을 가지면, 그들은 모세에게 그 판단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거기에 앉아 있고, 모세에게 판단을 얻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내 삼을 빌려갔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가 나의 삼을 빨리 되돌려 주도록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그를 지치게 하고 말죠. 그래서 그의 장인은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여! 스스로 죽이고 있네 그러! 그렇게 하지 말게. 자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래서 주님은 각 지파에서 70 인의 장로를 택해 장막 안으로 데려오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님을 취하시어, 70 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 결정과 판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사건들을 듣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판단할 수 없는 것들만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세는 청중이 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 전부를 매일 듣는 것으로부터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백만 명이 넘는 숫자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가죠!

민 11:16-17 에서, 모세가 70 인을 장막에 불러 세우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구약성경에서 성령님의 능력 베푸심의 표적이었던 대언을 시작했습니다.

삼상 10:6 은 대언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렸을 때 대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영이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격언으로 쓰기를, 사울도 대언자 중에 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민 11:26-30 에는, 진영에 남아 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장막에 있지 않았습다. 그리고 진영에서 대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모세여!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면서, 여기 장막에는 들어오지 않는군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금하리까? 하니, 모세는 이르기를, 아니야!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온 백성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영으로 모든 것이 충만했다면 내가 얼마나 쉬울까? 우리는 이 싸우며 입씨름하는 것을 버렸을 것이고, 모두가 영 안에서 동행했을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만약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들이 영 안에서 동행한다면, 그것이 어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었 4:30-32 와 5:1-2 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 안에서 동행한다면, 사랑은 영 안에서 걷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약속이 모든 육체에게 부여될 그 날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엘서에 있는 이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며, 몇 날이 못 되어 성취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눅 24:49 의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성령님의 약속이 부여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기다리거나 성령님을 위해 머물거나, 단지 한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것을 전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패턴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계통 교회들은 ‘머무르는 모임들(tarrying meetings)’이라 명명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위해 머물거나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래, 두 번 다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이나 성령님을 위해 머무라는 명령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은사로 주어진 이래, 그 분은 안수나 믿음의 믿는 것을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성령님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거나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만약 당신이 머무르기를 원했다면, 성경구절 대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시에 머무라. 나쁘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이 이미 교회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5 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침례와 물 침례의 경험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은 요한은 침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물은 그들이 침례를 베풀 때 쓰는 요소(the element)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의 침례입니다. 옛 생활이 죽었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이고, 그것은 침례의 핵심입니다.

성령 침례에서 침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은 그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 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마 3:11 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며 나는 그 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 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자가 되고, 성령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해 보기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이 물에 담겼다가

나오면,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당신을 집어넣다가 들어 올리면, 당신은 성령으로 모든 것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요 7:37-38 에서, 명절의 끝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것은, 그 분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영에 관해 말씀하신 것인데, 영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성령 충만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성령 침례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갖는 경험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오셔서 영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영이 당신의 삶에 계시므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란 말의 헬라어는 **parakhtov** 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하거나, 돕기 위하여 곁에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당신의 삶으로부터 성령님이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채워지는 것과 넘침은 분명한 다름이 있습니다. 넘침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은 오는 영의 내재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넘침이라고 보며, 그것은 안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당신의 삶으로부터 넘쳐흐르므로, 이것은 능력입니다. **dunamiv**, 세상을 만날 때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역동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몇 날이 못 되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니, 당신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6 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심이 이 때이니이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국이 즉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생각했었으니까요. 그 분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왕국 안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국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순수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그들끼리 다투며, 제자들끼리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비열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변화에 대한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 그 분의 일을 하시는데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불완전한 자를 뽑아서 그들을 완전하게 되도록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투며,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었고, 그들은 위대하다는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 경쟁에 어머니까지 끌어 들였잖아요? 그녀는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인 요한을 당신 우편에 있게 해 주시고, 다른 한편에는 야고보를 있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능력에 흥미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즉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여겨져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능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몇 날이면 되잖아요? 우리 반드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 전부 이것 아닙니까?

7절 “그 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왕국을 건설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알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언제이든지, 세워질 그 왕국을 끊임없이 항상 기대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왕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혹독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해결책도, 대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을 예언하셨는데, 나라들이 혼란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 말에, 밖으로 길이 없는 곳이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지의 전(whole) 문제, 이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 듯하니 문제입니다. 마약과 약물 과용의 문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증가하는 세금의 문제, 이것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싸움 문제도 해결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절망하기가 너무나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대로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분은 의와 기쁨과 화평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옳고 적당하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는 때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일하며 바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바쁘게 지내라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만 아시는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되어질 때를 사람이 추측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침례라는 진짜 주제로 바로 돌아가서, 말씀하시기를,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 (그들의 질문은, 당신의 왕국을 지금 세우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일어날 일의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but]이라는 단어는 분리적인 접속사로, 대조되는 두 사고를 함께 묶는 용법을 가지고 있어, 그 분은 분리적인 접속사로 사고를 함께 묶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너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but] 핵심으로 돌아가서,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들 스스로가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방송이나 신문이 그들에게 준 용어[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기행적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조소가 섞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는 기행적이다’ 고 하는 용어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용어가,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본이신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할 때,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온유할 수 없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사려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형상으로까지 변화시키십니다.

고후 3:18 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증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교훈이 도시에 가득 차기 전까지 우선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박해의 결과로 유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마침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유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로마에까지 전하게 됐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로 넘어가 이것이 세계를 휩쓸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패튼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주변의 지역으로 나가고, 더 멀리 퍼져나가, 궁극적으로는 증인이 모든 세상의 지역으로 퍼져가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채플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먼저 코스타 메사에서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고, 번성케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더하기 시작하여 여기 주변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 여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유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우니에 제프 존슨, 웨스트 코비나에 라울 리스, 리버사이드에 그렉 로리,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메켄토시는 아래의 샌디에고에, 척 스미스 주니어는 유카 벨리와 팜 스프링스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래 쪽의 다나 포인트에. 우리는 우리의 유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마리아 속으로 조금 멀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인 테일러는 워싱턴주의 시에틀로 갔고, 존 카슨은 오레곤주로, 루이스 니리는 산크라멘토, 스킵 하이직은 알바쿼크, 죠 포셔는 필라델피아, 빌 갈라틴은 뉴욕, 그리고 톰 스타이프는 덴버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속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날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작하신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갈보리 채플을 지원하고 계시며, 세계 곳곳에 갈보리 채플을 대표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마이크가 샌디에고에 갔으니, 그곳이 우리에게만 유대이지만, 또한 그곳은 마이크의 예루살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샌디에고를 채워 가며, 그의 유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에 21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는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며, 세계 속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스키프 하이직은 알바퀴크로 가서, 그곳을 그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사마리아였습니다. 스키프는 알바퀴크에 전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요일 아침 예배에 9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유대로 여길 수 있는 크로비스와 산타페에 교회를 시작했으며, 그에게는 사마리아인 아리조나주로 전도 지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전도하는 의미에서 인도에 사역을 시작하여 3백 명이 넘는 현지 선교사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모든 지역은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서부터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결국은 땅 맨 끝까지 퍼져 갑니다.

우리의 젊은이, 마이크 헤리스가 유고슬라비아의 슈바티자에 갔습니다. 그곳이 마이크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하, 헝거리,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도시들에 다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유대며,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곳 교회의 두 젊은 현지인들이 땅 맨 끝의 지역을 전도하려고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 채플 레드랜드의 젊은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캠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고, 거기 레드랜드의 젊은이 사역에서 전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장소는 거기로부터 주변의 지역으로 마치 암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나가 궁극적으로 땅 맨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전형적인 계획의 형태입니다. 이 패턴은 땅이라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까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갈보리 채플은 그의 주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그들 주변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복음의 새로운 폭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길로 말입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 분을 받아들여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쉐키나 구름(Shekinah Cloud)’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장막과 성전의 지성소에서 올라갔던 구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수의를 입으셨고, 그 분이 보이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0절 “그 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고,”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분께서 하늘로 가실 때 올리브 산[감람산]에 계셨습니다. 그 분이 오실 때 그 날에 그 발을 올리브 산에 놓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데서 취해졌으므로 그 분은 보이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도 그 분이 비밀스럽게 온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비밀스러운 방 속으로 그 분이 오셨다거나, 이제 비밀스러운 본부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등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오실 때를 모든 눈이 볼 것입니다. 주님을 찢었던 자들도 슬퍼할 것이며, 그들이 찢었던 그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밀스런 외투나 단검 같은 것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은 오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세계는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우리가 여전히 기대해야 하는 약속! 이것이 매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2절 “그 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2/3 마일 정도입니다. 13 절 “그들이 들어가 자기들이 목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열 한명으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불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조금만 써보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작은 돌’이란 뜻의 페트로스(Petros)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했고, 핵심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야이로의 딸이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변화도 목격했으며, 그 분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 분께 더 가까이 접근해서 그 분을 묘사했던 자입니다. 그는 열의가 있고, 흥분을 잘하며,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하여 단검을 뽑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대변인과 지도자가 되었고, 전통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기는 너무도 가치가 없다고 느꼈기에, 그들에게 요청하여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자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왔고, 5 천여 명이 언덕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자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스인들이 저기 와서 당신을 뵈기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 자였고, 전통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에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데사에도착해서, 두 끝이 땅에 박혀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고로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데,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핵심적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옆에 그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도록 말한 자였습니다[우리의 아들!]. 헤롯 아그립바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목을 베었고, 또한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야고보의 형을 집행자는 야고보의 용감성과 격려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야고보의 발아래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니, 이는 야고보의 사형이 혼자 집행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형을 집행자와 야고보는 함께 목 베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로 알려졌고, 야고보가 그의 형제이며, 물론 복음서 중에 하나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서신서 3 권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왕국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매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요한은 그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곳에 살았으며, 그 후에 에베소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문하생으로 초대교회의 리더인 폴리갑과 암파티우스와 이그나시우스등이 있었으며, 그들은 서머나, 헤리오폴리스, 안디옥의 감독들이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혹독한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 의해 로마로 끌려가서 끓는 기름의 가마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계시록을 기록한 밧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미시안의 죽음 뒤, 그는 네르바에 의해 귀양에서 풀려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은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 예수님께서 그를 찾았고, 그리고 또한 그 분을 따르도록 빌립을 부르셨다고 알려졌습니다. 빌립은 이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모세와 대언자가 기록한 그 분, 나사렛 예수를 찾았다고 하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낳을 수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더러 5 천여 명에게 먹일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고 물으셨고, 그리스 사람들은 와서, 선생이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고 물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물었던 자도 바로 그 빌립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는 북쪽의 아시아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헤리오폴리스에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했으며, 페르시아에서 매질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AD 54 년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매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데려 온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 태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유로, 그 결혼식이 나다나엘의 혼인은 아니지만 그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마태복음을 인도인의 언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잔혹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형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로도 알려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으로, 이 때 그의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썼고, 또한 알패오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는데, 아마도 알패오의 아들이라고 역시 알려진 작은 야고보와 그를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에 히브리어로 썼고, 그리고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파르티아와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고, 60 년경 이곳의 드하비라는 도시에서 미늘창[15, 6 세기에 쓰이던 창, 도끼 겸용의 무기]에 살해되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로 알려졌고, 아마도 깊은 명상가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어둡게만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자는 그를 깨우자고 말했지만, 도마만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 주자, 도마는, 내가 그 분을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했을 때, 갈릴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도 너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한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시리아, 파르티아,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까지 전했고, 오늘날까지 인도의 남부지방에는 성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큰 복음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의 기원을 도마의 전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구별되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아 본대로 레위 또는 마태도 알패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라는 것은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는 야고보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 키가 혹은 전체 체격이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그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새벽에 무덤에 가 본 여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분명히 셀롯에서 알려진 과격한 국수주의 그룹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되는 현상을 또한 가져오신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 마태는 유대인들에 의해 협력자로 여겼으나, 그는 유대인에게 반역자가 되었고, 모든 로마 사람을 죽인다고 맹세한 셀롯당의 한 사람에 대해, 로마인들은 그를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조금 밖에 모릅니다만, 전통에 의하면, 그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갔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브리톤섬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는데, 그는 다대오인 램바오라고 알려졌습니다. 마 10:3 에 보이는 이름이 바로 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그를 야고보의 형제라고 불렀는데, 어떤 야고보를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아마도 알패오의 아들이고, 마태의 형제인 작은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간을 여럿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와 야고보와 유다 등이 그렇습니다. 그가 유다서를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유다서의 저자[그는 자기가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말함]는 예수님의 젖동생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냐고 물었던 자입니다. 그는 AD 72 년경에 오데사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부금 관리를 맡아 지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기부금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값 비싼 향유가 부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자이며,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은 30 량에 팔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산에 계신 예수님 앞에 군대를 인도해 와서, 군호를 짜고, 자기와 키스하는 자가 그 분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기 위해 와서, 성전 바닥에 내던지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었습니다. 목에 매었던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몸이 땅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그만 배가 터져 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라고 부르신 자들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11 명이 있고, 유다는 이미 자살을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14 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15 절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백 이십 명이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16 절 “여러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마땅하도다.” 두 가지를 알리고 싶은데, 하나는 성경구절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쓰였기 때문에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경구절은 반드시 성취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고, 둘째는 성령에 의해 영감이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구절의 영감과 무오를 믿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님에 의해 말했으며, 성령님에 의해 영감이 되었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성경구절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근본적 믿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17 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음이라.” 그는 우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18 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구약에 보면, 그들이 나를 해하려 매긴바 그 상당한 값을 지정하여 말하라는 한 대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값을 은 30 량으로 매겼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성전 속으로 그것을 내던지자, 그들은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의해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도로 가져가,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였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것은 네 문제라며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성전 바닥에 내던지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아가 스스로 목을 매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피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매장지로 쓸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의 대언이, 은 30 량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신하므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성전 안에 던져졌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기 때문에, 대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최악의 보상[값]으로 밭을 구입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비겁한 행위로 얻은 값이 은 30 량이었습니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매,**”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자에 대한 때를 얻지 못한 종말입니다. **19 절** “이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20 절** “이는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성경구절의 지식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두 구절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이 시편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이것들이 가룟 유다에 대한 대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읽을 때, 문맥에서 당신이 집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께 영감 되어 성경구절의 큰 지식으로 이것들이 실제로 유다에 관련한 대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21 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때에,” **22 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세워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거 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도를 한 사람 선택함에 있어, 요구 사항이란, 시작부터 우리들과 함께 다니던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 의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 전

기간동안 우리들과 함께 여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로부터 나온 사도직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택했으니,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12 명을 선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자들로 해서 그들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23 절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맞디아더라.” 24 절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사,” 25 절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여 범죄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26 절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맞디아 위에 떨어지니라 이에 그가 열 한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나는 제비뽑기가 주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진짜 훌륭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푸라기로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를 그들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선택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즉 주님, 당신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문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도로, 나중에 등장하는 바울로, 그 다른 선택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맞디아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 들리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노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 봅시다. 그들이 제자들을 말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그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것은 거기가 마지막 언급이고, 서신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사도행전에서조차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발생하는데 있어 그녀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가야만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또한 가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에게 중재해 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중요한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을 뿐, 권위나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전혀 예수님의 구속의 협력자로 고려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곳이 그녀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또한, 이것이 맞디아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데, 제비뽑기의 애매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제거되고,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접수하기 전까지 내재하는 소유물처럼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므로 2 장에서 시작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일종의 서론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씩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이며, 사도들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레는 가슴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이것을 오늘날도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충만해 지기를 기도하고, 당신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넘쳐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빕니다. 주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